<h1>나 혼자만 레벨업-11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nf8e3b3ba26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11화</p>  
<p>말을 내뱉자마자 전신이 은은한 푸른 기운에 휩싸였다.</p>  
<p>'어... 이 기분은?'</p>  
<p>곧바로 주희의 얼굴이 떠올랐다.</p>  
<p>부상을 당해 마법으로 치료받을 때도 이와 비슷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.</p>  
<p>굳이 표현하자면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기분이랄까?</p>  
<p>슈우욱-</p>  
<p>푸른 기운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느껴졌다.</p>  
<p>왠지 모를 아쉬움이 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콩콩 뛰어 보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다.</p>  
<p>"이럴 수가!"</p>  
<p>터질 듯이 뛰던 심장이 진정되고, 거칠었던 호흡도 안정되었다.</p>  
<p>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. 쓰러질 것 같았던 몸이 금방 자고 일어난 것처럼 개운했다.</p>  
<p>효과는 만점이었다.</p>  
<p>'대단한데?'</p>  
<p>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마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상은 자신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.</p>  
<p>그렇다면 능력치 포인트라는 것 역시?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들어 올리자 침대 위에 놓인 작은 상자와 눈앞에 떠 있는 상태창이 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'랜덤 박스란 건 저 상자를 말하는 것일 테고...'</p>  
<p>중요한 건 상태창이다.</p>  
<p>상태창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었다.</p>  
<p>이름: 성진우</p>  
<p>레벨: 1</p>  
<p>직업: 없음</p>  
<p>칭호: 없음</p>  
<p>HP: 100</p>  
<p>MP: 10</p>  
<p>피로도: 0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10 체력: 10 민첩: 10 지능:10 감각: 10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3)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1</p>  
<p>옛날에 온라인 게임을 했을 때 본, 막 생성된 초보 캐릭터의 능력치와 비슷했다.</p>  
<p>'이게 지금 내 능력치인가?'</p>  
<p>현재 레벨1.</p>  
<p>스탯도 전부 기본 수치.</p>  
<p>E급 헌터들 중에서도 최약체로 평가받는 자신의 현실을 고려하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.</p>  
<p>눈에 띄는 것은 스킬 부분이었다.</p>  
<p>패시브 스킬의 '근성'과 액티브 스킬의 '질주'.</p>  
<p>묘하게 낯이 익었다.</p>  
<p>"아, 그러고 보니 어제..."</p>  
<p>어제,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새벽 페널티 존에서 지네들에게 쫓길 때 들려온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단어들이었다.</p>  
<p>죽을 힘을 다해 3시간쯤 뛰어다녔을 때인가?</p>  
<p>갑자기 메시지가 날아왔다.</p>  
<p>['스킬: 질주 Lv.1'을 배웠습니다.]</p>  
<p>['스킬: 근성 Lv.1'을 배웠습니다.]</p>  
<p>당시는 달리는 데 집중하느라 무슨 소린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다.</p>  
<p>진우는 스킬 내용을 확인했다.</p>  
<p>[스킬: 질주 Lv.1]</p>  
<p>액티브 스킬.</p>  
<p>필요 마나 5.</p>  
<p>달리기가 당신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. 스킬을 시전하면 이동 속도가 30% 증가합니다. 시전 중 1분당 마나가 1씩 감소합니다.</p>  
<p>[스킬: 근성 Lv.1]</p>  
<p>패시브 스킬.</p>  
<p>필요 마나 없음.</p>  
<p>당친은 지치지 않는 근성을 가졌습니다. 체력이 30% 이하로 떨어지면 근성 스킬이 발동해 받는 피해가 50% 감소합니다.</p>  
<p>'내가 끈질기게 달렸기 때문에 [질주]와 [근성]을 배울 수 있었던 건가?'</p>  
<p>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떨어졌다.</p>  
<p>즉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일정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 스킬이 되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.</p>  
<p>"맙소사!"</p>  
<p>이건 굉장한 메리트였다.</p>  
<p>헌터들이 쓸 수 있는 스킬들은 첫 각성 때 습득하거나 A급 이상의 마수들에게서 가끔 떨어진다는 룬석으로 밖에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룬석의 가격은 최저 수익에서 비싸면 수백억을 넘어서기도 한다.</p>  
<p>최근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룬석의 가격은 약 7백억이었다.</p>  
<p>다수의 부상자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스킬이 담긴 룬석으로, 외국의 S급 치유계 헌터가 사비를 털어 익명으로 구매했다고 한다.</p>  
<p>진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.</p>  
<p>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스킬과 피해를 덜 받게 만드는 스킬.</p>  
<p>수백억에 거래됐다는 스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스킬들이었다.</p>  
<p>그런 스킬들을 공짜로 익히게 된 것이다.</p>  
<p>마력이 적어서 제대로 활용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배운 것이 어딘가?</p>  
<p>'게다가 근성 스킬은 아예 마나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니...'</p>  
<p>아마도 마나는 마력을 뜻하는 듯했다.</p>  
<p>그렇다면 아무리 마력이 부족한 자신이라도 근성 스킬 만큼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소리다.</p>  
<p>그것만으로도 큰 소득이었다.</p>  
<p>"그런데... 이 알 수 없음이란 건 뭐지?"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</p>  
<p>패시브 스킬의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'알 수 없음'.</p>  
<p>패시브에 있으니 자동으로 발동되는 스킬이긴 할 텐데, 어떤 정보도 나와 있지 않았다.</p>  
<p>'이건 단서조차 없네.'</p>  
<p>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한정적이었다.</p>  
<p>이 상태에서 고민해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진 않았다.</p>  
<p>그래서 진우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.</p>  
<p>'능력치 포인트라...'</p>  
<p>아직 보상으로 받은 능력치 포인트 세 개가 미분배 상태로 남아 있었다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10 체력: 10 민첩: 10 지능:10 감각: 10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3)</p>  
<p>'스탯을 3만큼 올릴 수 있다는 거겠지?'</p>  
<p>스탯 목록에 있는 능력치는 모두 다섯 개.</p>  
<p>레벨이 1이라 그런지 모든 능력치가 단순했다.</p>  
<p>하지만 현실이란 걸 감안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었다.</p>  
<p>순간의 선택에 따라 실제 능력이 달라진다면 누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?</p>  
<p>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.</p>  
<p>'근력은 힘일 테고...'</p>  
<p>힘과 체력, 민첩은 어떤 의미인지 대충 짐작이 갔다.</p>  
<p>게임 같은 데서 흔히 접할 수 있는 '스탯'들이니.</p>  
<p>문제는 끝부분에 위치해 있는 지능과 감각 능력치였는데, 줄곧 불친절했던 시스템답게 이번 역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.</p>  
<p>지능을 올리면 머리가 좋아지는 건가?</p>  
<p>감각을 올리면 예민해지고?</p>  
<p>어찌 됐든 지능이나 감각 스탯 모두 그다지 유용해 보이지는 않았다.</p>  
<p>자신은 전투계열 헌터.</p>  
<p>필요한 건 힘이나 속도, 혹은 체력이었다.</p>  
<p>'셋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역시 힘이겠지.'</p>  
<p>힘이 세지면 여러모로 편리하다.</p>  
<p>그리고 스탯의 수치가 올라가면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알아 보고 싶었다.</p>  
<p>그래서 가장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은 근력 스탯에 포인트를 전부 투자했다.</p>  
<p>"근력에 3포인트."</p>  
<p>띠링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13 체력: 10 민첩: 10 지능:10 감각: 10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'끝난... 건가?'</p>  
<p>그게 끝이었다.</p>  
<p>변화는 눈앞에 홀로그램처럼 떠 있는 근력 스탯 숫자가 10에서 13으로 변한 것뿐.</p>  
<p>만화나 영화에서처럼 몸에서 주체할 수 없는 힘이 끓어오른다거나 하지는 않았다.</p>  
<p>"뭔가 달라지긴 했나?"</p>  
<p>일단 힘을 한번 써 보자.</p>  
<p>진우는 침대 옆에 붙어 서서 침대를 들어 보았다. 약간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생각보다 쉽게 들렸다.</p>  
<p>하지만 이게 침대가 무겁지 않아서 그런 건지, 아니면 근력이 강해져서 그런 건지 구별이 불가능했다.</p>  
<p>'포인트를 쓰기 전에 미리 한번 들어 볼걸.'</p>  
<p>이미 포인트를 다 쓰고 난 뒤라 투자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을 알기가 어려웠다.</p>  
<p>'포인트가 좀 더 있었다면...'</p>  
<p>입맛을 다시던 진우에게 번뜩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.</p>  
<p>"페널티 퀘스트 보상!"</p>  
<p>오늘 일일퀘만 완료했던 게 아니다.</p>  
<p>죽다 살아나긴 했지만 페널티 퀘스트도 분명 완료했었고, 보상이 지급됐다는 메시지도 떴었다.</p>  
<p>진우는 허겁지겁 메시지창을 불러왔다.</p>  
<p>[페널티 퀘스트 완료 보상이 도착하였습니다.]</p>  
<p>[보상을 확인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"역시!"</p>  
<p>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.</p>  
<p>당연히 YES지!</p>  
<p>[아래와 같은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]</p>  
<p>보상 1. 능력치 포인트 +3</p>  
<p>보상 2. 랜덤 박스 1개</p>  
<p>[전부 수락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일일 퀘스트 완료 때와 다르게 상태 회복 옵션은 없었지만, 필요한 건 능력치 포인트였다.</p>  
<p>벌칙으로 받은 퀘스트다 보니 보상에 차이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똑같은 3포인트를 받았다.</p>  
<p>진우는 쾌재를 불렀다.</p>  
<p>"근력에 3포인트 추가."</p>  
<p>띠링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16 체력: 10 민첩: 10 지능:10 감각: 10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근력이 13에서 16으로 뛰었다.</p>  
<p>진우는 다시 침대 앞에 서서 팔에 힘을 주었다.</p>  
<p>그랬더니 방금 전보다 훨씬 더 쉽게 침대가 들렸다. 이제는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.</p>  
<p>"정말이다...!"</p>  
<p>정말로 힘이 강해졌다.</p>  
<p>스탯으로만 따지면 본래 수치였던 10에서 무려 60퍼센트나 상승한 셈이니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나.</p>  
<p>신이 난 진우는 침대뿐만이 아니라 병실 안의 여러 집기를 들어 올리며 소란을 피웠다.</p>  
<p>그러다 마침 우연히 병실 앞을 지나가다 소리를 듣고 들어온 수간호사의 지적을 받고서야 그만두었다.</p>  
<p>"...죄송합니다."</p>  
<p>수간호사가 나가자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"휴-."</p>  
<p>하지만 흥분은 가시지 않았다.</p>  
<p>심장이 거세게 뛰었다.</p>  
<p>쿵쾅쿵쾅.</p>  
<p>가슴이 아플 정도였다.</p>  
<p>매일 찾아오는 퀘스트와 능력치 포인트 보상!</p>  
<p>이 기현상이 갑작스럽게 끝나지만 않는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.</p>  
<p>이건 커다란 기회였다.</p>  
<p>거기다 정보창에 떠 있었던 레벨.</p>  
<p>'어쩌면 레벨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?'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'에이... 설마.'</p>  
<p>너무도 꿈 같은 이야기였다.</p>  
<p>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았다.</p>  
<p>퀘스트와 보상만으로도 충분하니까.</p>  
<p>능력치 포인트로 능력을 끌어올린다.</p>  
<p>어제보다는 오늘, 오늘보다는 내일.</p>  
<p>날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다.</p>  
<p>'E급 헌터, 그중에서도 최약병기로 불리는 내가 강해져?'</p>  
<p>S,A급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다.</p>  
<p>동료로 일했던 C,D급 헌터들이 들어도 웃을 소리다.</p>  
<p>배를 잡으며 손가락질을 하겠지.</p>  
<p>성진우가 강해진다고?</p>  
<p>천하의 그 성진우가?</p>  
<p>하지만 비웃음을 당해도 좋았다.</p>  
<p>아니, 비웃음 당하는 건 이제 익숙했다.</p>  
<p>단지 기회를 손에 넣은 것만으로도 기뻤다.</p>  
<p>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.</p>  
<p>'혹시 이게 각성 후 각성의 과정일까?'</p>  
<p>흔한 일은 아니지만 밑바닥을 전전하던 헌터가 재각성을 통해 일류급으로 거듭나는 경우는 분명히 있었다.</p>  
<p>그렇다면 재각성을 통해 강해진 헌터들은 모두 이와 같은 현상을 겪었던 게 아닐까?</p>  
<p>'한번 찾아보자.'</p>  
<p>궁금해진 진우는 병실 구석에 마련되어 있는 컴퓨터 앞에 자리 잡았다.</p>  
<p>협회에서 제공한 VIP룸이다 보니 컴퓨터를 비롯해 이것저것 편리한 것이 많았다.</p>  
<p>타닥타닥.</p>  
<p>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.</p>  
<p>검색, 검색, 또 검색.</p>  
<p>수많은 사이트를 오고 갔다.</p>  
<p>헌터자격증 소유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사이트에도 접속해 보았다.</p>  
<p>유료 정보는 결제까지 해 가면서 관련 문서를 끊임없이 뒤졌다.</p>  
<p>하지만 같기는커녕 비슷한 사례조차 없었다.</p>  
<p>'달라...'</p>  
<p>일반적인 재각성과는 완전히 달랐다.</p>  
<p>대부분의 재각성 헌터들은 헌터가 될 때와 같은 과정의 각성을 통해 힘을 얻는다.</p>  
<p>자신처럼 죽기 직전에 이상한 음성이 들린다거나, 게임처럼 능력치가 보이고 그 수치를 올려 힘을 성장시키는 경우는 전무했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